

주연으로서의 마지막 연극

09학번 고유석

이번에 연극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학과생활이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기도 했지만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갈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입생 시절에 연극을 한번 하고 2014년, 2015년 세 번의 연극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연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비할 거 하면서 자기관리를 하면서 이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추억을 하나 더 남겨보자는 의미에서 연극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연극 경험이 있는 만큼 연출을 맡았던 대섭이와 조연출을 맡았던 태음이가 주인공을 해주기를 바랐고 주인공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연기를 잘하진 않지만 노력으로 연기를 조금 더 잘해보자는 마인드로 합니다. 하지만 연습시간에 늦기도 하고 대본을 외우는데 약간의 게으름이 작용했는지 나태해졌는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초반에는 준비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섭이와 태음이에게 미안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마음을 잡고 열심히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라 70퍼 이상의 대본이 정말 부담이 크긴 했으나 정말 마지막 작품은 실수 없이 끝내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연습 때 대본도 정말 많이 까먹고 연습

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 한다고 해놓고 애들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겠지?'란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공연을 얼마 앞두고 있었을 때 밤새면서 다 같이 고생하는 동생들을 보면서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나름의 긴장도 하면서 연극연습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색했던 동생들과도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웃긴 장면에서는 같이 웃고 2달이라는 시간동안 거의 동고동락 하듯이 연습을 같이 해서 내심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극 당일 전 연습 날 애드립을 잘 안 날리는 편인데 나도 모르게 재미를 위한 애드립에 동생들이 예기치 못하게 웃음이 터져 갑자기 우려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하면 재미있을 거 같은데 연극을 같이 하는 연극부원의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공연 당일 애드리브를 그대로 썼고 반응이 정말 좋아서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 정말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꼈고 그리고 같이 연습했던 후배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학교생활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연극부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